

6/21(화) 시편 78-79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구속사(역사) 시편]

시인들은 때로 역사를 풀어내는 이야기꾼이 됩니다.

다만 역사 연구자보다는 <연설가>에 가깝습니다.

(78, 105-106, 135-136)

78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략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으로 당부했듯(신32장),

시인은 회중들에게 <역사를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전하라고 강권합니다(78:5-6).

하나님을 기억하여 생명의 길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78:7-8).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와 유혹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78:19>,

<능히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78:20>,

때마다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78:12-53).

\*78:17,40,56/ 8,22,32,37,42/ 10,37,56/ 7,11,35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고 각자 장막에 거하게 되자

언약은 오간데 없고 몸과 마음을 우상들에 빼앗겨버렸습니다.

번번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78:54-56,58).

우리는 역사를 통해 죄의 결국을 알게 됩니다.

그 비참함과 고통의 결말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78:61-67).

멸망 후 재 위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는 시편 79편은

<역사를 기억하라>는 78편의 권고에 힘을 더합니다.

나는 성경 속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을 조정합니까?

❶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❷ 나의 자녀와 그의 자녀들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 시편3권 (73-89편)

편	유형	편	유형
73	지혜시편	82	제의 기도문
74	공동체 탄식시	83	공동체 탄식시
75	공동체 감사시	84	시온의 노래
76	시온의 노래	85	개인 탄식시
77	개인 탄식시	86	공동체 탄식시
78	구속사 시편(지혜시편)	87	시온의 노래
79	공동체 탄식시	88	개인 탄식시
80	공동체 탄식시	89	개인 탄식시(왕조)
81	계약갱신 제의문		